



濁流清論

제52호 2018년 3월 29일 (목)

발행인: 정 영 기 / 편집: 편집위원회

< 알려 드립니다 >

◇ 수시로 원고 접수합니다

탁류청론은 아주대학교 교수님들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교수님들의 원고는 교수회 이메일 (jy717@ajou.ac.kr)로 보내주십시오. 탁류청론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위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 차

<u>더불어 푸른 출발에서</u> 아주대학교, 10년 뒤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1
<u>정년퇴임 교수 소회</u> 교수회의 존재 이유를 생각 한다. '은퇴'의 느낌 Blooming Ajou의 과거와 미래	3
<u>신임교원 소개</u> 2018학년도 1학기 신임교원 소개	7
<u>소통과 담론</u> 제16대 총장선임과정을 돌이켜 보며	14
<u>교수들의 건강칼럼</u> 만성 대사성 질환, 통풍에 대하여 이해하기	15
<u>소식</u> 2017학년도 교수회 총회 개최	16

더불어 푸른 출발에서

아주대학교, 10년 뒤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전자공학과 김 상 배

모두의 예상대로 폐교당하는 대학이 생기기 시작했다. 당장 내년 입시부터 고등학교 졸업생 가운데에서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의 수가 대학정원을 밑돈다고 한다. 재수생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되고 보면 폐교되는 학교가 나타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입학정원을 다 못 채우는 대학들이 생겨난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이를 두고 대학들은 위기상황이라고 한다. 그리고 교육당국은 대학정원 과잉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여러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왔다.

우리대학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더욱 심각한 위기는 재정적 어려움일 것이다. 지난 10여 년간 시행된 반값 등록금이란 이름의 국가정책으로 옥죄어진 대학재정 때문에 모든 대학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대학처럼 재정규모가 작고 교육지출이 많아 기금을 조성하지 못했던 대학들에게는 이 재정난이 치명적이다. 실질적인 가용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록금이 10여 년간 동결되면서 우리대학은 아사 직전에 놓여있다 하겠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한편 교육정책을 따르고 평가를 잘 받으려면 교수 충원률은 높이고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은 늘려야 한다. 이에 따라 인건비 등 고정 지출은 느는데 수입은 동결되니 재정난은 피할 수가 없다. 설상가상으로 중도이탈 학생이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등록금 수입 자체가 줄어들었다. 유일한 해결책은 외부 재정지원인데, 기부금 모금은 한계에 다다랐고 재단의 지원은 법정 부담금에조차 미치지 못한다. 발전기금 적립은커녕 예비비조차 편성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일부에서는 교직원 연봉을 삭감해야 하는 것 아니냐를 이야기하는 상황이다.

더 큰 심각성은 이 재정난이 고스란히 교육의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데에 있다. 공과대학, 정보통신대학, 자연대학의 교육용 기계, 기구, 집기,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2008년을 정점으로 한 뒤 점점 그 액수가 줄어들어 2013년에는 그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2014, 2015년도에는 정보통신대학의 특성화 사업으로 그 액수가 늘었지만 교비 지출만 보면 2008년도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무려 60%가 감소한 것이다. 실험실습비 감소는 기계기구 구입비에 비하여는 덜 심각하지만, 2008년도 지출액의 80%가 2015년도에 지출되었다. 절대액수 감소가 이러하니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적인 감소는 더 심각할 것이다. 교육용 기계기구 구입비와 실험실습비를 합한 액수가 전체 등록금 수입의 5%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직접교육 예산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우리 학교의 예산이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뼈아픈 사실이다.

어쩌면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었다는 것이 더 큰 위기인지도 모르겠다. 이 예산 부족으로 시작된 교육의 부실은 학생 만족도와 평판도의 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중도 이탈 학생 수의 증가와 기부금 수탁 감소로 나타났다. 이렇게 교육부실이 다시 재정난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차츰 잘못하면 헤쳐 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재정난이 심각하여 일상적인 교육예산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충분한 예산지원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치인지도 모른다. 이제 짠 교육으로 짠 졸업생을 양산하면서 열심히 가르치는 것만으로 교육경쟁력을 이야기하며 만족해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이 재정난의 시대에 무엇을 어떤 목표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없다면, 우리는 교육기관으로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미래세대를 키우는 것이 대학의 본질이라면, 그 미래가 어떤 모습일 것인지를 그리는 것 또한 대학의 본질이다. 대학에서 연구를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국내외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들을 보면 대규모의 융합연구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러한 연구를 하려면 분야별로 연구소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몇 년 전 그러한 연구소를 육성하려는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다가 무슨 연유에서인지 중단되고 말았다. 지금은 그러한 시도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렇게 우리대학의 연구는 교수 개인에 맡겨져 있고, 우리 학교를 대표하는 연구 그룹도 눈에 띄지 않는다.

가장 큰 위기는 숫자로 나타나는 우리가 처한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가? 그러한 인식의 바탕 위에서 돌파구를 열려는 의지가 있는가?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할 리더십과 역량이 있는가? 위기가 가중될수록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되돌아보고 그러한 철저한 자기성찰의 바탕 위에서 나아갈 길을 찾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돌보지 않고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고 체계적이고 의도적으로 우리 자신의 문제를 찾아내서 슬기롭게 해결해나가야 한다. 이 자율개선구조는 생존과 발전의 필수요건이며 미국 대학인증기관들의 핵심 평가기준이기도 하다. 우리학교에서도 다양한 분석보고서들이 만들어지고 있기는 하다. 그 안에는 학생 만족도 보고서도 있고, 그렇게 조사된 학생 만족도가 학과 평가에 활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 분석보고서들의 정책제안들이, 그리고 그 보고서에 나타난 문제점분석을 통한 해결방안들이 학교행정에 반영되어 문제가 해결되고, 그에 따라 학교발전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별로 없다. 우리에게서 생존과 발전의 대전제인 우리의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나가는 체계가 없는 것이다. 어쩌면 개선의지 자체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설령 그러한 체계

와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재정위기 속에서 실천할 수가 없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력, 공간, 재정투입이 요구되는데 우리에게선 아무런 여유 자원이 없는 것이다. 인력에도, 공간에도, 재정에도 아무런 여유가 없다. 그 근본원인은 물론 재정난이다. 국가의 재정지원사업에 뛰어들어 재정확보를 하려해도 대응 자금과 공간을 만들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누군가의 말대로 대학교육의 가장 근원적인 커다란 문제는 과거 세대인 교수들이 미래 세대여야 할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데에 있다. 대학이 연구를 하고 미래 지향적인 교육과정을 다듬고 실천하는 데에 공을 들여야 하는 이유이다. 이 과정이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자율개선체제를 갖추어야 하

는 것이다.

이제 신입생들이 푸른 꿈을 안고 우리 캠퍼스 안에서 벽찬 대학생활을 시작했다. 재학생들 또한 그들의 꿈을 실현하려고 새롭게 학업을 시작했다. 미래를 살아갈 그들에게 우리대학은 어떤 의미 있는 발전 기회를 주고 있는가? 이 질문에 자신 있고 명쾌한 답을 하지 못한다면, 아주대학교는 10년 뒤까지 살아있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정년퇴임 교수 소회

교수회의 존재 이유를 생각한다.

경영학과

김 광 윤

저는 정년을 맞아 「탁류청론」의 원고 요청을 받고 아주 대교수회규칙을 다시 보았습니다. 교수회는 “학칙에 근거하여 대학 운영에 대한 전체 교수들의 참여와 이를 통한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7년 10월에 설치된 조직입니다. 초창기 임의단체인 교수협의회로 수십년 활동해오다가 국내 교육제도의 변화로 공식 기구로 대치된 것으로서 그 권한은 대의원회를 통해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 및 학사 관련 사항과 기타 대학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건의하며, 총회와 단대별 교수회에서 총장 및 단과대학장의 임명과 해임을 건의하는 안건 등을 다루는 야권기구인 셈이지요.

과거 35년간 대학 생활 중 교수회(구, 교수협의회 포함)의 총무/감사/위원장/분회장을 경험한 바를 근거로 후배 교수님들이 교수회에 기대하는 바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학교에 갇 부임한 신입교수로서 교수회의에서 다루지 못한 개인의 교내 인사/총무 문제를 소속 단과대학

또는 교무처나 총무처에 직접 얘기해보아도 해결이 미흡하였던 문제나 상담하기 어려워 얘기조차 꺼내지 못한 문제를 교수회 관련 위원회에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기를 소망할 겁니다.

둘째, 중견교수로서 승진이나 승급, 성과승격 문제에 본인 나름대로 조직에 누가 되지 않도록 평균 이상의 업적을 쌓기 위해 연구와 교육, 봉사 등에 노력했으나 이러저런 이유로 인정받지 못했을 때 상담할 위원회를 찾고자 할 겁니다.

셋째, 일반교수로서 교육/연구 과정에서 인권이나 윤리 문제로 구설수에 올랐을 때 이를 자신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옹호해줄 수 있는 상담처를 기대할 겁니다.

넷째, 교수의 보수나 자녀복지 문제, 명예교수 처우 등 개인이 얘기하기 쉽지 않은 사항을 단체 의견으로 수렴하여 전달해주기를 희망할 겁니다.

다섯째, 총장/학장의 임명과 해임 관련하여 토론을 통해 사후동의 또는 사전추천 의사를 결집하고 이를 재단과 학교본부에 전달하는 공적 견제 역할을 해주기 바랄 겁니다.

이상 열거한 예시 사항을 해결하고 구체적 진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교수회 임원진, 특히 의장의 민주적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수회에는 조직 측면에서 부의장, 총무, 수명의 분과위원장들(교권인사, 교무학생, 복지재정 등)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집행부)와 각 대학의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단과대학 대의위원회가 있지요. 리더십 있는 의장 시절에는 주기적 전체대의위원회는 물론 집행부와 대학별 대의원대표(분회장)를 포함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수시로 열어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학교에 대한 교섭력을 제고하기도 했었지요. 유감스럽게도 어떤

의장시절에는 개인적 열정으로 나름 열심히 했으나, 분과위원회 구성도 못하며, 본부 평의원 인선에 분회장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내정하여 추인을 강요하고, 대정부 성명서를 전체대의위원회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채 해당학과 교수님들 주장만으로 찬성요구 회람을 돌려 이를 항의하는 대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내부적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기도 했었지요. 개인이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독단에 흐르면 구성원의 냉소로 인해 내외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법... 저는 우리 교수회가 민주적 리더십 아래 상호 존중하는 따뜻한 조직이면서 동시에 지속가능한 아주대로 발전하도록 조금 기능을 다하는 야권 조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년퇴임 교수 소회

‘은퇴’의 느낌

심리학과 김혜숙

거의 30년을 다니던 아주대에서 은퇴하였다. 채 한달도 되지 않았지만 은퇴를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가장 우세하게 느꼈던 감정은 안도와 홀가분이다. 내가 무사히 정년퇴임을 하게 되었구나, 30년 동안 크게 아프지도 않았고 큰 갈등도 겪지 않아 대체로 평온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었으며, 교수의 본분인 교육과 연구에 충실히 하려고 노력했으니 미흡하나마 열심히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남들도 다 하는 것인데, 정년퇴임이 뭐 그리 자랑스러운 일인가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내 생각에는 요즈음에는 교수의 정년퇴임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교수에게 점점 더 요구되는 격무로 인한 건강 문제로 그만두게 될 수도 있고, 교수의 활동 반경의 다양화로 외부 기관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또한 학생과의 갈등이나 교수간의 갈등 등 현재의 교수 생활의 양태가 결코 단순하지 않음으로 인해 정년퇴임 또한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니라고 느껴진다.

돌이켜 보면 30년 동안 그날이 그날 같게 강의와 연구

에 매달려 평범하게 살아 왔다. 그런데 강의와 연구라는 이 기본적인 평범한 일상의 반복이 지금은 새삼 고맙게 느껴진다.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집단과제 수행과 영상작업을 만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는 항상 젊은이들과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교수라는 직업이 정말 좋구나 하고 혼자서 흥겨워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 팀강의였던 ‘여성학’ 강의나 ‘다문화사회와 적응’ 등 우리 사회 약자 집단에 대해 생각해 보는 교양 과목을 강의할 때는 다소 보수적인 우리 학생들과의 소통이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었고, 결국 다문화사회 강의가 폐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좌절을 안겨 주었다. 물론 팀강의의 문제나 과도한 팀과제 부담 등의 문제도 있었으나, 사회의 약자들에 대해 고찰해 보는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외면이 점점 더 심해져 가는 현상도 문제였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실용적인 과목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향은 보다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대학 문화 및 사회 문화를 이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교양

과목을 무조건 수강생 ‘20명’으로 제한하는 강의 시스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운 좋게도 ‘고정관념과 편견’이라는 동일한 주제의 연구를 박사논문부터 지금까지 지속해 올 수 있었다. 많지는 않지만 소신있고 열정적인 대학원생들을 만나 재미있고도 의미있는 연구들을 해올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꾸준히 크고 작은 연구비들을 수주하도록 노력했고, 덕분에 타학문 분야의 교수님들과 학제간 연구도 수행할 수 있었고, 또한 대학원생들과 해외 학회에 가서 발표하는 기회를 기질 수 있었던 것이 보람있게 느껴진다. 사실 아직도 하고 싶은 연구 주제들-‘공분의 심리’, ‘적극적 조치에 대한 사람들의 수용 증진’ 혹은 ‘미투 운동에 대한 심리적 분석’등-이 남아 있으나 후학들이 다루어 주기를 바란다. 아쉬운 점은 이 분야 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편견의 감소에 있는데, 이를 위한 실질적 적용 연구를 많이 수행하지 못하였던 점이다. 또한 괜한 아카데미 콤플렉스와 능력 부족으로 관련 정부 기관이나 시민단체와의 협력 등의 모색에 소극적이었던 점이다.

아주대에 와서 개인적으로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던 일 중의 하나는 교수협의회 시절 여러 교수님들과 뜻을 모아 학내 민주화 운동을 벌였다는 점이다. 이 일로 인해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공대 이상혁 교수님과 의과대학 이일영 교수님 등 여러 교수님들이 해직되는 아픔도 겪었지만 결국은 여러 교수님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이겨 내고 학내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다.

또한 그후에도 의기투합하여, 결국은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만행들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는 성명서를 만들고 함께 서명하는 전통을 만들어 낼 수 있어 자랑스러웠다. 또한 장단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교수협의회 총무로 일하면서 대학평의회 제도와 교수회 제도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는 점도 뿌듯한 일 중의 하나다. 아울러 아직은 비공식적이지만, 여교수님들과 일년에 두 번 만남을 가져 신입 여교수님들을 만나고 육아휴직제 등 여교수들의 고충과 사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왔던 것도 위로와 즐거움 중의 하나였다. 앞으로 후배 여교수님들께서 힘을 합쳐 여교수회를 정식 기구로 만들고, 또한 서울대, 연세대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남녀 교수에 공히 적용될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를 만들어 내시기를 바란다.

이제까지 교육과 연구라는 기본에 충실하고자 노력한 공적인 존재로 열심히 살아 왔으니, 이제는 보다 현실에 직접 닿아 있는 역동적이며 의미있는 활동을 하는 데 동참하고 싶다. 또 생활 주변의 작은 즐거움들을 찾고 나누는 기쁨을 누리길 바란다. 이러한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 ‘작지만 알찬 대학’인 아주대에서의 30년이 소중한 토대가 되고 있음에 감사한다.

** 이 글은 필자가 쓴, INSIGHT 2017 겨울호에 실린 ‘아주를 떠나며’와 일부 중복됩니다.

정년퇴임 교수 소회

Blooming Ajou의 과거와 미래

의학과 생화학교실

임인경

나이 들면 오감이 둔해진다는 것이 남의 이야기인줄 알았는데 어느새 나에게도... 때에 맞추어서 은퇴라는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상황을 맞이하였다. 오로지 한 가지 목표를 향하여 달리던 나는 옆 사람의 비판적인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성격이었기에 대학교수들의 언로로서 집행

부의 일방통행을 견제하는 교수회 활동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난데없이 탁류청론에서 원고를 부탁하는데 청론을 펼칠만한 자신은 전혀 없기에 일단 거절, 그러나 정년퇴임 한 교수들의 소회를 듣는다는 일단 자판 위에 앉았다. 그렇지 않아도 눈이 부시고 잘 안보여서 정년을

했는데 모니터를 보면서 글을 쓰다니... 사실 내 주변을 흐르는 물결은 언제나 청류이지 탁류는 없었는데... 굳이 탁류를 찾아보겠다는 작심을 해 본다.

지금부터 30년 전인 1988년 아주대학교를 처음 찾았다. 미국에 있다 잠시 나와서 우리 부부의 결혼을 주례해 주신 김효규 총장님께 인사 차 들렀다, 그 해 아주의대 제1회 입학생을 선발하였다는 사실도 모른 상태였다. 교수실로 추정되는 방마다 제각각 굴뚝이 삐죽 나와 있는 건물을 보는 순간 “앗 ~ 이럴 수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 대학의 모습이 겹쳐지는 순간이었다. 당시 총장님은 촉탁으로 일하는 간호학 출신의 S 선생과 단 둘이 의예과 학사를 처리하시면서 귀국하여 당신을 도와 달라 하셨다. 미국 실험실의 동료인 중국 포스닥의 만류를 뒤로하고 귀국 후 모교인 연세의대에서 그간의 연구내용을 발표한 후 학장실로 갔을 때 이유복 학장께서 직접 의료원장과 병원장께 인사를 시키시면서 모교로 들어오라고 하셨다. 집으로 가면서 고민을 했다. 교수실 굴뚝을 내밀고 있는 아주대학교와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자랑하는 모교의 시설,,, 비교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때 내 마음을 움직이는 생각이 있었다, “의대 6년과 석.박사 학위과정 5년 동안 느꼈던 묵은 역사의 수레바퀴와 거부할 수 없는 선후배 사이 경직된 의사생활을 개선하고 싶다는 욕심”이었다. 더불어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김 총장님의 간곡한 부탁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렇다, 이 기회에 한번 새로운 차원의 의과대학을 만들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먼저 약속을 주신 분에 대한 신의도 지키고...”

전국을 뒤지고 밤을 새워가며 학사운영시행세칙 마련을 필두로 본과 1-2학년에 밀집되어 있는 기초의학 교육과정의 개편, 21세기 의학 및 의료의 패러다임 변화를 리드할 수 있는 기초의학 지식을 확실하게 하는 기초의학종합평가제 도입을 위한 작업들을 착수하였다. 1990년 2월 16일 총장님을 대신하여 유성에서 열리는 전국 의과대학장협의회 워크숍에 참석하였을 때 기록한 메모는 당시 나의 고민을 여실히 표현하였다. ‘이상적인 의학교육의 장을 만들려면 먼저 온 교수의 희생과 노력이 필수적인데

아주의대라는 이름과 학생 60명만 있을 뿐 아직 의대학장도 없는 상태인 우리대학에서 내가 내 연구만 고집한다면 이 대학은 어찌될까? 모교의 부름조차 마다하고 아주의대를 선택한 내 꿈은 물거품이 될 것이 뻔하다. 그러나 가족을 모두 서울에 남겨둔 채 홀로 미국 땅에서 살고 있던 연구에 대한 열정과 꿈 또한 접고 싶지 않았기에 답답한 심경을 하소연 할 곳이 없었다. 당시 김 총장님은 의대학장을 모시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 당대 의학계 리더가 되시는 분들을 한 사람씩 접촉하셨으나 시간을 끝다 거절당하다 하던 중, 이성낙 교수의 내락을 받으셨다. 내가 일하기 시작한 지 약 1년 후 전임 학장과 함께 미생물학 K교수의 부임으로 전임교수는 모두 5인이 되었다. 거의 매일 아침 5인이 함께 의과대학 발전을 위한 BRAINSTORMING을 시작하면 저녁이 되어서야 내용을 정리할 수 있었다, 이상적인 대학을 만들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주변 환경은 매우 열악했으나 우리 안에 흐르는 청류는 그 어느 것도 부럽지 않은 듯 훈훈하게 흘러넘쳤다. 내 자신이 의학교육을 받으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보완 수정해 나갈 수 있음에 보람 가득하였다. 그 당시 아주대학교 교정은 적막강산이었다. 오후가 되면 교수와 학생들의 모습을 찾기 어려웠고 불 꺼진 방은 온통 빈 동네였다. 불이 켜 있는 방은 몇 개 정해져 있었다.

오늘 아주대학교와 의료원은 큰 성장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의 인지도는 아직도 우리의 자존심을 만족시키기에 태부족이다. 어떻게 하면 그 간격과 부족함을 채우면서 따라 잡을 수 있을까??? 끊임없이 생각하고 노력했다. 의학관 로비에 16 방위와 의학의 상징물을 설치하면서 “의학을 탐구하는 이 집에서 의료인의 이상이 실현되기를 기원하며” 라는 글귀를 지어서 넣기도 하였다. 지구상의 높은 지붕 8000미터 16좌 완등자인 엄홍길 대장을 초빙하고 그가 찍어준 K2 사진과 EVEREST의 신비로운 석양이 담긴 엽서편지를 매일 바라보면서 BLOOMING AJOU를 꿈꾸었다. 우수한 대학원생은 연구활동에 필수이므로 전국 최초로 대학원생 100% 장학제도를 시작하기도 했다. 의과학의 세계정상을 향하여 쉬지

않고 나아가는 아주의대의 꿈을 설명하면서 이곳저곳 벽면과 공간에 그림과 조각물을 세우고 의학과 1층 로비에 학생과 방문객의 쉬는 공간인 의자와 탁자들을 구입하였다. 의학과 건물 외벽을 칠하고 학생들 농구장에 야간조명을 비치하면서... 교정 곳곳에 설만한 벤치를 설치하면서... 교수업적평가제를 신설하고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면서... 도대체 의대학장 역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국 의대학장 및 교수들이 아주대병원 별관 대강당을 찾게 하였다. 교수들의 해외 발표 및 국제학술지 발표를 장려하기 위하여 학회비용 및 논문발표 비용을 보조하고 교수들이 떠나려 할 때 발 벗고 나서서 유능한 교수들의 이직을 막았다. 경쟁력 갖춘 연구에 동물실험이 필수라는 생각에 동물실 별도건물 신축을 주장하여 아주대학 근무 20년만에 신축을 시작하고 의학도의 술기학습을 위한 실습실을 마련하였다.

치적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다, 아주대학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지내온 과거를 돌아보았다. 일반인에게 특히 입시 관계자들에게 인정받는 아주대학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첫째, 학생들이 자신의 모교인 아주대학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격려해야 한다, 내가 아주대학 졸업생인 것이 자랑스럽다는 애교심을 갖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둘째, 평교수들은 어떻습니까? 무엇보다도 즐겁게 헌신할 수 있어야겠는데 그 환경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노력해서 조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공유해야겠다. 셋째, 보직교수들은 우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헌신적 노력이 필요하다.

내 것을 일단 내려놓으세요. 평교수와 학생들 그리고 환자들을 위한 여건마련에 시간과 노력을 써야 합니다. 특히 대학장은 교정에서 끊임없는 학술활동이 진행되도록 나서서 주선하고 평교수들이 참여하도록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교정을 잠재우면 안 됩니다. 넷째, 인사를 의논하는 과정에 능력을 갖추고 있는 지원자가 있을 때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 조직 안에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다섯째, 대학의 최고 책임자는 무엇보다도 기관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교직원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토양을 가꾸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획일적인 잣대로 평가하지 말고 각 교수의 장점을 평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해야합니다. 끝으로 대학 및 병원직원들에게 부탁의 말씀은 매일 반복되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 과연 다른 대학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방법을 도입하고 있는지 찾아보고 문의하는 근무자세가 필요합니다.

사족 같지만, 은퇴한 교수들에게 끊임없이 연락하여서 대학 및 의료원소식이 자세히 전달되게 하여 찾아가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방문하도록 홍보활동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학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은퇴하신 분들의 지혜를 빌려서 온고이지신의 지혜를 실천하는 아주대학교의 장래를 그려봅니다.

신임교원 소개

2018학년도 1학기 신임교원 소개(가나다순)

경영학과 김재현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경영학과에 임용된 김재현입니다. 무엇보다 아주대학교에서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 드리며,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2016년 University of Hawaii at Maona에서 회계학 세부전공으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본교에 오기 전에는 멜버른의 Deakin University에서 조교수로 재직하였습니다.

8페이지에 계속

저는 융합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학과 회계학을 접목시키면서 언어가 기업경영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의 2017년 4월호에 저의 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이 논문에서 미래와 현재를 구분하지 않는 언어권에 있는 기업일수록 미래를 가깝게 여기므로 미래의 cost를 발생시키면서 현재의 인위적인 이익을 증가시키는 행동을 적게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현재 미국 CEO의 conference call을 기반으로 하여 CEO의 언어가 기업의 경영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Social network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connection이 기업의 경영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주대학교에서 좋은 연구를 수행하고, 학생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소통을 함으로써 유익한 강의를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학과 김 한 상

이번 학기부터 사회학과에서 조교수로 일하게 된 김한상입니다. 제 연구 분야는 역사사회학과 문화사회학, 영상사회학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2013년에 박사학위를 받고 그해 가을 학기부터 하버드, UC샌디에고, 라이스대학 등 약 5년간 가까이 미국에서 박사후 연구를 하고 귀국했습니다.

제 연구의 기본적인 관심사는 시각적인 것이 어떻게 근대 사회와 주체를 형성해왔는가에 있습니다. 박사 논문은 냉전 시대에 한국에 주재했던 미국의 선전기구들이 영화라는 시각매체를 통해 어떠한 주체 형성을 도모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영화인들과 관객들이 스스로의 정체성 구축에 있어서 어떠한 협상의 과정을 거쳤는가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박사 후 연구는 이를 동아시아 차원으로 확장하는 것으로서, 2차 대전 이후의 대만과 오키나와의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해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진행 중인 또 다른 연구로 시각성과 이동성이 근대 한국사회에서 어떠한 문화적 동원 기제로 작동했는가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이 연구는 근대 대중교통이나 로봇 자동화와 같은 과학기술사적 전개와 영화, 텔레비전 등 시청각 미디어의 발전을 함께 맞물린 것으로 바라보는 것으로서, 정보통신대학이나 공과대학의 여러 존경하는 선생님들과도 교류를 통해 융복합 연구로 발전시켜보고 싶은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의 일원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연구를 통해, 그리고 학생들과의 진솔한 소통과 교육을 통해 아주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의학과 영상의학교실 김 현 지

안녕하세요. 2018년 3월부터 영상의학과 소아 파트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김현지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졸업 후 세브란스 병원에서 전공의 생활을 마쳤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소아 영상 분야 강사 생활을 한 후 2015년 3월부터는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강사 및 임상 조교수로 일하였습니다.

학생 시절부터 가진 소아에 대한 관심이 결국 저를 소아 영상 분야로 이끈 것 같습니다. 소아 영상은 전신을 다루기 때문에 학술 활동도 신경, 복부, 흉부, 근골격 질환의 다양한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점 연구는 미숙아 신경 질환으로 첨단 영상 기법으로 영유아 발달을 예측하는 과제를 여러 교수님들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사로서 어린 환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잃지 않고 진료 협력 파트로서 저에게 의뢰하시는 일들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싶습니다.

학술적으로 자유롭게 소통하고 서로 격려하는 분위기의 아주대학교에서 교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고 또 영광입니다. 학교 발전에 이바지하신 선배 교수님들을 본 받아 저도 후배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생명공학과 박 대 찬

2018년 3월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에 임용된 박대찬입니다. 저는 서울대 생명과학부를 2008년에 졸업하고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의 Institute for Cell and Molecular Biology 에서 2014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UT Austin 화학공학과에서 박사후과정 연구를 수행하고, 2016년 11월부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의공학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다 아주대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박사학위는 유전체 데이터 분석을 전공하였습니다. 암유전체, 전사체, 후생유전체, 분석을 위한 생명정보학을 공부하였고, 박사후연구 기간 동안에는 유전체학을 면역학과 항체공학분야에 접목하는 연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용량 유전체 빅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천문학적인 수의 면역세포의 다양성이 암이나 바이러스 감염과 같은 질병에 의해 어떻게 역동적으로 변화하는지에 대해 대용량 유전체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부하고자 합니다.

아주대와는 깊은 인연이 있고 큰 은혜를 입은 바 있습니다. 11년 전, 대학교 4학년 때 아주대 의과대학 MRC 여름방학 인턴 연구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아주대 기숙사에서 2달 간 거주하며 생화학교실에서 연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강원도에서 열린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세포주기 분과 하계 학술대회에 아주대 소속으로 따라 갔다가, 그 학회장 에서 만난 대학원생과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대로 이직하게 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농담삼아, 장가 보내주신 아주대에 은혜를 갚고자 교원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답합니다. 좋은 연구와 교육으로 저희 가정을 꾸려주신 것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대는 젊고 강하며 진취적인 기상으로 대표되는 명문학교입니다. 이러한 명성을 이루신 교수님들의 고견을 경청하며, 그 명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와 실용적이고 전인적인 교육으로 아주대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학과 의료정보학과 박 범 희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의과대학 의료정보학과에 새로 임용된 박범희입니다. 이렇게 탁류청론을 통해 아주대학교 교수님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뇌영상분석 분야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미국 UCLA 병원에서 박사후 연구원 생활을 하였고, 한국외국어대학교 통계학과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저는 인간 뇌기능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뇌기능영상을 통해 추정된 뇌연결망을 통계적으로 모형화하는 연구를 주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의료 빅데이터 분야를 이끌고 있는 의료정보학과와의 뛰어나신 교수님들을 모시고, 뇌영상자료뿐 아니라 다양하게 축적되고 있는 임상 의료 빅데이터에 여러 통계적 기법들을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하여 정밀의료과학분야에 기여를 하고 싶은 포부가 있습니다.

앞으로 아주대학교의 일원으로서 좋은 연구와 학제간 융합연구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고, 학생 교육 등 다른 분야에서 주어진 역할에 성심을 다하여 학교의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학과 해부학교실 박 선 아

지면을 통해서라도 아주대학교 여러 교수님들께 인사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 기쁩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신촌세브란스 병원 인턴 및 신경과 전공의 수료 후 아주대학교 병원과 세브란스 병원 전임의를 거친 후 15년간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교원으로서 신경과 환자 진료, 교육 및 연구를 병행해 왔었습니다. 의료 환경의 변화와 퇴행성치매 환자를 오랜 기간 진료할 때 느끼게 되는 의료 한계들로 인해 제 인생의 후반부를 연구에 더 집중을 하고자 작년 초 한국과학기술원 연구교수로 이직하게 되었고, 1년간의 연구중심 생활을 마치고 이번에 아주대학교 의대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브란스 병원 전공의 시절부터 아주대 병원에 연 3개월씩 파견을 왔었고, 그 후 이곳에서 2년간의 전임의 생활을 하면서 국내 ‘신경과학’ 분야에 선도적 역할을 한 아주대학교의 모습을 목격하였고, 뇌질환연구센터의 일원으로서 제 자신도 신경과학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이 때부터 키워 온 신경과학 연구에 대한 흥미는 많은 진료 부담으로 힘든 와중에도 틈틈이 기초 및 중개연구를 진행해 오고, 2년간의 해외 연수 기간을 UC San Diego의 Neuroscience department에 정식 박사 후 연구원으로 다녀 올 열의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의과대학과 병원 에서 일하게 되어 맘이 새롭고, 제 연구에 고향 같은 이곳에서 여러 훌륭한 교수님들과 같이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퇴행성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병 치매의 비유전형 타입의 병인 규명과 바이오마커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앞으로는 치료제 개발 연구 쪽으로 제 연구를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대 학생들의 교육에도 힘써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고, 훌륭한 의사 연구자, 혹은 연구 마인드를 가진 훌륭한 임상 의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의학과 정신건강의학교실 손 상 준

안녕하십니까.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 신입교원 손상준입니다. 저는 노인정신건강 관련하여 치매, 우울증, 불안증, 자살 분야를 세부 전공하였으며, 지난 4년 간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연구 및 진료조교수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치매센터를 통한 다양한 임상 및 보건역학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최근에는 임상중개연구를 통한 유전체, 뇌영상, 라이프로그 및 임상 정보를 통합한 노인정신질환 모델링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 왔던 전임교원의 자리에 서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신입교원으로서 연구, 교육 및 진료에서의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고자 합니다. 앞서 이러한 길을 개척하셨던 여러 교수님들께 가르침을 구하며, 앞으로 자랑스러운 ‘아주인’으로서 학교와 병원, 교실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학과 알레르기내과학교실 신 유 섭

저는 이번에 아주대병원 알레르기내과에 새로 임용된 신유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1993년 아주대학교 의학과로 입학한 이후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학생시절과 인턴, 레지던트, 석사, 박사 과정까지 마쳤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 있는 National Jewish Health에서 마우스를 이용한 천식 모델을 공부한 후 귀국하였습니다. 이후에도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아주대병원 알레르기내과에서 특임교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저의 연구 분야는 천식의 다양한 표현형에 따른 마우스 모델들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신약의 전임상 연구와 이에 이어지는 임상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아주대병원의 대형 국책 과제인 연구중심병원 과제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료분야는 알레르기내과 영역에 속하는 알레르기 천식, 비염, 아토피 피부염, 약물 알레르기, 두드러기, 호산구 질환이며 특히 알레르기 질환에서 유일하게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인 알레르겐 면역요법에 관심을 가지고 환자 진료와 학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면역요법 후 환자들에게 객관적인 biomarker를 이용하여 진단과 monitoring을 하는 연구에도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전세계적인 환경 오염과 기후변화로 유병률이 급증하고 있는 알레르기 질환을 담당할 아주대학교의 일원으로써 저에게 오는 모든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진료를 수행하고 선배, 동료 교수님들과 아주대학교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연구와 교육에도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학과 안 수 현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봄학기에 자연과학대학 수학과에 새로 임용된 안수현입니다. 이렇게 탁류청론의 지면을 통해 선임 교수님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016년 서울대학교에서 통계학을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삼성서울병원 의생명정보센터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던 뒤 이번 3월부터 새로운 아주 가족으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연구 분야는 순서정보를 활용한 비모수적 추론과 보건의료 자료 분석으로 이론과 잘 맞지 않는 자료에 적합한 방법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분야의 연구를 성실히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직 저의 경험을 적극 활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타 학과와의 융합 연구, 공동 연구를 활발히 하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급인력 및 후학 양성과 동시에 제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하고자 합니다.

아직은 아주대학교에 대하여 알아가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 교수님들과 학과 및 본부의 선생님들에게 배우며 차근차근 아주대학교 안에서 제 자리를 잡아가겠습니다. 또한 아주 가족과 소통하며 연구와 교육을 통해 학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화학과 유 영 동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유영동입니다. 이렇게 탁류청론을 통해 선배 교수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2012년 카이스트 화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미국으로 건너가 UC 버클리 화학과와 미네소타 대학교 화학과에서 5여 년간의 박사 후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저는 주로 화학기상증착법을 통해 새로운 나노물질 및 저차원 물질을 합성하고 그 물질들의 물리, 화학적 성질을 분석한 후 이를 기반으로 그 물질들을 새로운 응용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박사 과정 동안은 주로 단결정 금속 나노와이어의 합성 및 응용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박사 후 과정 동안은 저차원 전이금속 칼코겐화물의 합성 및 일렉트로닉스 및 옵토일렉트로닉스로의 응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학문적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응용성이 큰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아주대학교의 일원으로서 제가 구상해온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여 아주대학교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학생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진행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화학과 이인환

안녕하세요.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신입교원 이인환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화학부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고, 동 대학원에 진학하여, 전이금속 촉매 유기 합성 반응을 이용한 고분자 합성 및 자기조립 현상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지도교수: 최태림). 박사 학위 이후에는 UC 산타바바라 대학의 재료연구소에서 라디칼 반응을 이용한 고분자 합성에 대한 연구를 2년간 수행하였습니다 (지도교수: Craig Hawker). 이러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저의 주된 연구 관심사는 전도성 고분자, 의료용 고분자, 환경 친화적 고분자에 대한 정밀 중합 합성법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해, 에너지, 의료, 공업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저는 학생들을 이 나라의 주축으로 키워나가는 좋은 교육자, 매일 성장하는 좋은 연구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교수님들과 소통하며, 학제간 공동 연구를 창출하고, 학생들과 소통하며, 한 발짝 더 나아가 헌신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안전공학과 이제찬

안녕하십니까, 2018년 3월부터 환경안전공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이제찬입니다. 이렇게 지면으로나마 선배교수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2008년 학부 졸업 후 같은 해 여름 도미하여 2010년 컬럼비아 대학교 환경공학 석사학위, 2015년 위스콘신 대학교-매디슨에서 화학공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사졸업 후 델라웨어 대학교 에너지촉매센터에서 박사후 연구원 재직 중 한국연구재단의 해외우수신진연구자 유치사업에 선정되어 세종대학교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근무한 뒤 이번 3월부터 아주가족으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석사과정부터 지금까지 매립지가스의 친환경 내연기관연료로의 이용, 바이오연료 및 고부가가치 화학물질 생산용 촉매 및 공정 개발, 지질 및 휘발성지방산 분석기술 개발, 고기능성 친환경 탄소물질 생산 및 활용, 친환경 유기성 폐기물처리방법 개발 등 환경공학 및 화학공학 학제간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쌓아올려진 선배교수님들의 업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잘 보조하여 학교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안전공학과 이창구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공학과 신입교원 이창구입니다. 지면을 통해서나마 여러 선배 교수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지역시스템공학과에서 공학사와 공학석사, 공학박사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물자원순환연구단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2016년 9월부터는 미국 휴스턴의 라이스 대학교 NEWT (Nano-Enabled Water Treatment) 센터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18년 3월부로 아주대학교 신입교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연구주제는 나노입자를 포함하는 기능성 환경소재의 수처리 적용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학위과정 동안에는 자성의 탄소나노튜브 복합체를 합성하여 수중 중금속 제거에 이용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NEWT센터에서는 공

극을 가지는 전기방사섬유에 이산화티타늄 광촉매를 고정화하여 수중 유기물을 선택적으로 흡착 분해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아주대학교의 교원으로서 여러 선배 교수님들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주어진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학과 이 황

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1학기 건축학과 신입 교원 이 황입니다. 존경하는 아주대학교의 교수님들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하게 되어 설레는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학, 석사를 하고, 건축설계 실무에 종사하다 2016년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박사를 하였습니다. 그 뒤 마이애미에 위치한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에서 조교수를 하다 좋은 기회를 얻어 고향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건축학을 연구하지만 기존의 예술/실무 편향적 접근에서 벗어나, 기술적인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응용하여 건축 연구와 실무의 영역을 새로이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시뮬레이션과 최적화 알고리즘을 활용한 건축 형태 생성 설계 자동화를 주로 연구하였으며, 박사 논문으로 정보 이론을 네트워크 기법에 접목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및 인간 행동을 생물학적인 지표로 진단하는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연구 주제를 좀 더 확장하여 로봇 공학과 부드러운 소재를 활용한 “움직이는 환경 적응형 건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정되고 딱딱한 건물이 아니라, 기후와 거주자의 행동에 따라 변화하는 형태와 공간을 실현할 수 있다면, 에너지와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조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이끌던 연구실을 정비하여 아주대학교에서 Design Engineering and Robotics Lab for Sustainable Architecture (DEERS)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간 만나 뵈 교수님들, 학생들, 교직원 분들을 통해 아주대가 생각보다 더 좋은 학교이며, 젊고 건강한 학교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주 커뮤니티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열심히 가르치고, 연구하고, 학교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교수가 되고자 합니다.

화학공학과 임 재 훈

안녕하십니까,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조교수에 2018년부터 부임하게 된 임재훈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에서 학사 및 박사학위를 받고 동 대학 전기공학부에서 1년, 미국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에서 4년간 박사후 연구원을 지냈으며 마침내 아주대학교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원에 진학한 이후 줄곧 반도체 나노입자, 특히 양자점을 기초로 다양한 에너지 소재 및 소자를 개발해오고 있습니다. 양자점 전기발광소자의 구동원리 분석 및 고효율화 연구는 현재 태동하고 있는 양자점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스마트 조명, 산업용 광원, 미용, 의료 등 해당 기술을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핵심 기초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주대학교에서는 양자점 기술의 실질적 응용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선배 및 동료 교수님, 그리고 열정이 넘치는 아주대 학생들과 함께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아주대학교에 임용되어 젊은 학생들을 가르칠 생각을 하니 매우 흥분되고 기대되지만, 한편으로는 연구자가 아닌 교육자의 입장에서 학생들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이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첫 발을 내딛는 교육자로서,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연구자로서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선배 교수님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학과 호흡기내과학교실 정 우 영

안녕하십니까. 호흡기내과학교실 신입교원 정우영입니다.

사실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학부와 수련의, 내과 전공의 및 내과학교실 연구강사를 지내고, 2008년부터 아주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어 신입교원이라고 불리기에는 많이 묵은 감이 있습니다. 2010년 겨울, 지금으로부터 7년여 전에 전임

교원 심사에서 탈락한 후, 인생이 끝난 것만 같은 좌절을 맛보기도 하였으나, 꾸준히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변함없이 성실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다른 문이 열린다는 것을 믿고 매진해 온 바 2차 시기에서 결국 목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많이 늦었으나, 제가 굵이굵이 돌아온 길들이, 어려움에 처해 포기의 기로를 넘나들고 있는 후학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위로 섞인 다독임으로 쓰일 수 있다면 교원으로서 행복할 것입니다.

최근까지 결핵과 연관된 임상적인 연구를 주로 해 왔으나, 앞으로는 중환자치료, 특히 기계학습을 통한 인공지능과 집중치료 환경의 접목에 대해 매진하려고 합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의학과 마취통증의학교실 최 중 범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8년 3월에 의학과 마취통증의학교실 통증치료 파트에 임용된 최종범이라고 합니다. 연세의대 졸업 및 수련 후 세브란스병원 통증클리닉에서 1년간 임상강사, 분당서울대병원에서 1년간 임상강사 후 강남 세브란스병원에서 6년간 임상조교수, 아주대병원에서 2년간 진료조교수를 거쳐 이번에 조교수로 임용 받았습니다. 레지던트 4년차때 독일에서 있었던 신경병성 통증 국제 학회에 은사님 이신 강남 세브란스 이윤우 교수님을 모시고 참석한 것이 계기가 되어 교수의 꿈을 키워왔던 것 같습니다. 제 전공분야는 통증 의학이고 그 중 난치성 통증 질환인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과 대상포진 후 신경통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학의 큰 흐름인 미세 침습 치료에도 관심이 많아 척추의 비수술적인 치료쪽에 관련된 연구 및 기구 개발, 통증 진단 기법인 체열 촬영 관련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입 교원으로써 꿈과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 동안 막연히 생각 하고만 있었던 연구들을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려고 하고, 아주대학교의 연구 지원 시스템이 저의 이런 꿈들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아주대학교의 훌륭한 선배 교수님들을 따라 연구, 교육에 매진하고 아주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학과 감염내과학교실 허 중 연

의과대학 감염내과학교실 신입교원 허중연입니다. 이렇게 탁류청론의 지면을 통해 여러 교수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감염내과 전임의를 마치고 3년간 국군수도병원에서 감염내과 군의관 생활과 이후 충북대학교병원에서 4년간 감염내과 전문의로 근무하였다가 이번에 아주대학교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처음 감염학을 전공하기로 하였을 때만 하더라도 대학에 남고자 하는 욕심보다는 내가 의사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환자와 사회에 나눠줄 수 있는 의사가 되자고 다짐했습니다.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군내 유일한 감염질환 전문 군의관으로 일하면서 아직은 앓던 병사들이 감염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모습을 보았고 나라를 위해 애쓰는 군인들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궁금한 내용을 찾아서 다른 의사들과 공유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제가 군의관 시절 군인들에게서 발생하는 감염병을 이해할 수 있는 군진의학에 관한 국내 자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논문을 작성하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연구를 시작하면서 학교로 자리를 옮겨 연구를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임상의학이나 연구 수준이 많이 발전하기는 하였지만 감염학 분야만 하더라도 일개 연구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사회감염병과 관련된 자료는 대부분 외국의 자료를 인용하거나 참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인플루엔자와 같은 호흡기감염 질환 그리고 군인에서 발생하는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임상·역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빅데이터를 이용한 지역사회감염병의 역학 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감염병에 대한 연구는 여러 분야의 연구자가 참여하지 않으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아주대학교에서 많은 선배 교수님들, 학생들과 협업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연구 및 진료에 힘쓰면서 아주대학교와 병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과
담론

제16대 총장선임과정을 돌이켜 보며

의학과 내분비대사내과학교실

김 대 중(교수회 총무)

지난 2월 1일 아주대학교 제16대 총장으로 박형주 수학과 석좌교수가 취임하면서 작년 6월부터 시작된 총장선거 과정은 ‘무사히’ 마무리가 되었다. 이 글을 쓰는 것은 그 과정이 교수회의 입장에서 볼 때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다.

제15대 김동연 총장이 새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발탁되면서 우리 학교는 작년 6월부터 총장대행 체제로 운영되었다. 신임총장 선출을 위한 총장선거위원회의 구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시작되었다. 과거 제15대 총장 선임을 위한 선거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은 아주대학교 전임교원 중 대학평의원회 의장이 추천하는 3인으로 구성된 바 있다. 당시에도 협상주체인 교수회와 재단 간 줄다리기가 있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이런 합의를 이뤘던 것이다. 의과대학, 자연과학계열, 인문·사회계열 각 1명의 교수대표가 참여한 바 있었다.

그런데 이번 제16대 총장선거위원회 구성 과정에서는 재단이 규정을 바꾸어 대학평의원회 대표를 교수로 한정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시작되었다(9월1일 공지). 교수회와 대학평의원회 교수대표는 즉각 재단의 결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학생대표와 직원대표가 선거위원회에 참여할 의향을 밝히게 되었고, 9월 7일 대학평의원회에서 교수대표 3인, 학생대표 1인, 직원대표 1인의 수정안을 검토하였으나 역시 재단에 의해 거부되었다.

대학평의원회 구성원 간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의장 직권으로 교수대표만을 추천할 수는 없었다. 교수회 대의원과 대학평의원회 교수대표들은 총장선거위원회에 교수대표를 참여시키지 않는 방향도 제시되었으나 9월 18일부터 3일간 교수의견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가지고 입장을 정하기로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교수들은 84%가 총장선거위원회에 참여를 원하는 것으로

답을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설문을 오해하고 답한 교수들이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교수회 집행부와 교수들 간의 소통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쳐 최종적으로 교수대표 1인, 학생대표 1인, 직원대표 1인이 참여하는 것으로 정해졌고 교수대표는 대표성이 가장 높은 교수회 의장이 참여하게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구성된 총장선거위원회는 총장 후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고, 학문윤리검증소위원회는 교수회에 요청을 하여 교수회 대의원을 중심으로 연구업적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였다. 교내 후보 5인, 교외 후보 1인에 대한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박형주 총장이 취임하게 되었다.

총장선거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의 핵심은 교수회와 사전 의논이나 양해 없이 선거위원회 구성 규칙을 변경시킨 것이었다. 재단이 중간 과정에서 추후 제17대 총장선거위원회 구성에서는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공문으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근원적으로는 교수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재단의 자세에서 발생한 문제로 생각된다. 실제로 총장선거위원회에 교수대표가 1인으로 축소되면서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깊이 있게 할 수 없는 취약함을 드러내게 되었다. 현행 총장 선출 방식을 지속하려 한다면 재단은 향후 총장선거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교수회와 사전협의의 해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박형주 총장 선임 때와 같은 선거위원회 구성 방식을 고수한다면 어렵게 합의했던 현행 총장 선출 방식의 본래 취지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교수들의 건강칼럼

만성 대사성 질환, 통풍에 대하여 이해하기

의학과 류마티스내과학교실

김 현 아

통풍은 「아플 통, 痛」과 「바람 풍, 風」으로 이루어진 말로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 이름으로만 보아도 통증이 얼마나 참기 힘든지 짐작 할 수 있다. 성서에 「아더왕이 그의 발에 병을 얻어 고생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기원전 5세기에 히포크라테스도 이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어 통풍은 꽤 오래 전부터 알려진 병임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 통풍의 유병율이 아직 정확히 조사되지 않았지만, 백인에서 보고되는 1%보다는 낮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통풍 환자의 경우 90%가 남성이고, 대부분 40세 전후로 첫 증상을 보인다. 하지만 최근 인스턴트 음식이나 음주 등 식습관의 변화로 20~30대에 통풍 발작으로 내원하는 환자가 많아지고 있다.

통풍의 원인은 몸 속에 요산이 많아지는 고요산혈증이다. 요산은 핵산의 일종인 퓨린이 체내에서 분해되어 생긴 것으로, 만들어진 요산은 콩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되어 몸 속에서 일정한 농도로 평형을 유지한다. 그런데 몸에서 요산이 많이 만들어지든지, 아니면 콩팥에서 소변으로 잘 배출되지 않게 되면 요산의 농도가 올라가 문제를 일으킨다. 소금물에 비유를 하면, 물에 녹는 점 이상으로 소금을 많이 넣게 되면 소금은 어느 정도 녹다가, 더 이상 녹지 않고 물 속에 결정으로 남아 있게 되는 것처럼 요산도 몸 속에 6.8mg/dL 이상으로 있게 되면 다 녹지 못하여 결정을 이루게 되고 이 결정은 관절과 여러 조직에 쌓이게 되어,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몸에서 요산이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로는 운동 과다, 비만, 과음, 퓨린의 과잉 섭취, 다양한 혈액 질환 등이 있고, 요산이 콩팥에서 소변으로 잘 배출되지 않는 경우로는 유전적 요인을 포함하여 신장기능 이상, 고혈압, 갑상선기능저하증, 이노제나 아스피린, 알코올의 섭취 등이 있다.

통풍은 그 증상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한다. 1) 무증상 고요산혈증 2) 급성 통풍성 관절염 3) 간헐기 통풍 4) 만성 결절성 통풍이다. 무증상 고요산혈증은 몸 속에 요산은 높으나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몸 속 요산이 9mg/dL 이상이면 5년 이내에 20%에서 통풍이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무증상 고요산혈증으로 잘 지내다가 술을 많이 마시거나 고기를 많이 먹어 몸 속 요산이 급격히 높아지면 급

성 통풍성 관절염이 생긴다. 엄지 발가락이나 발목, 무릎에 잘 생기는데 심하게 아프면서, 열이 나고, 빨갛게 부어 오른다. 사실 이 때에 치료를 하지 않아도 보통 1주일이면 아프지 않고 깨끗이 낫게 된다. 그리고 간헐기 통풍에 들어가게 된다. 간헐기 통풍이란 관절염 후 증상이 전혀 없는 시기를 의미하고,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정도로 오래 지속되는데 환자는 병이 없어진 것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시 술을 많이 마시거나 고기를 많이 먹어 다시 몸 속 요산이 높아지면 급성 통풍성 관절염이 반복되게 된다. 이 때 요산을 낮추는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만성 결절성 통풍으로 들어간다. 이 시기가 되면 여러 관절에 통증이 지속된다. 이러한 만성 통풍의 경우의 증상은 류마티스관절염과 비슷하여 혼동하기도 한다. 요산이 관절뿐 아니라 여러 조직에 침착되어 결절을 형성하는데 이를 요산결절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요로 결석, 콩팥 질환,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을 동반한다.

통풍을 치료하는 목적은 급성 통풍 발작을 빨리 호전시키고, 통풍성 관절염의 재발 및 관절과 신장, 다른 장기에 생기는 합병증을 예방하고, 통풍과 관련된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꾸준히 약물 치료하고 운동 및 음식 조절, 금주 등을 병행해야 한다. 통풍의 약물 치료는 증상 치료약과 고요산혈증 치료약으로 나뉜다. 증상 치료약에는 급성 통풍 발작 시 사용하는 약으로 콜히친, 비스테로이드항염제, 스테로이드가 있고 고요산혈증 치료약에는 몸속에서 요산의 형성을 억제하는 알로푸리놀, 페복소스타트, 몸속의 요산이 콩팥으로 잘 배설되게 하는 프로베네시드, 벤즈브로마른 등이 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통풍은 단순한 관절염이 아니라 요산 대사 장애에 의한 전신 질환이라는 점이다. 그렇게 때문에 통증이 있을 때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당뇨병이나 고혈압처럼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요산을 떨어뜨리는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한다. 지속적인 관리와 약물 치료로 만성 결절성 통풍이나 요로 결석, 신장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소식

교수회 소식

2017학년도 교수회 총회 개최



지난 2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다산관 대강당에서 2017학년도 교수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정기총회에는 의대를 포함한 아주대학교 교수님 70분 정도가 참석해 주셨으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위임장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교수회 김대중 총무의 사회로 정기총회는 시작되었으며, 정영기 의장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정기총회는 크게 보고 사항과 논의사항으로 나누어 진행되었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고 사항 -

- 1) 2017학년도 교수회 사업 보고
 - (1) 교수회 대의원회 회의 개최
 - (2) 설문조사
 - (3) 기타 사업
 - (4) 기타 보고사항
- 2) 감사 보고

- 논의 사항 -

- 1) 총장선거위원회 관련(총장 선출과정 사안)
- 2) 기타 논의사항

한 해 동안 교수회에서 활동한 내역을 보고해 드렸으며, 기타사업으로는 매 학기 1 회씩 개최하는 신입교원 환영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기타 보고사항으로 의과대학 교수회에서 의료원장 3 연임에 대한 성명서를 게시한 사안을 보고 하였습니다.

보고 사항에 이어 교수회 감사이신 윤호섭 교수님의 감사 보고가 있었으며, 논의사항으로 총장선거위원회 관련 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기총회는 교수회 규칙 제6조에 따라 매년 1회 개최됩니다. 교수회 정기총회는 많은 교수님들께서 한 자리에 모여 학교의 발전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다음 정기총회에도 많은 참석 부탁 드리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 주셔서 참석해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